

러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루블화 환율 동향 보고

'14. 12. 12(금)
모스크바사무소

□ 러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10.5%로 전격 인상 (1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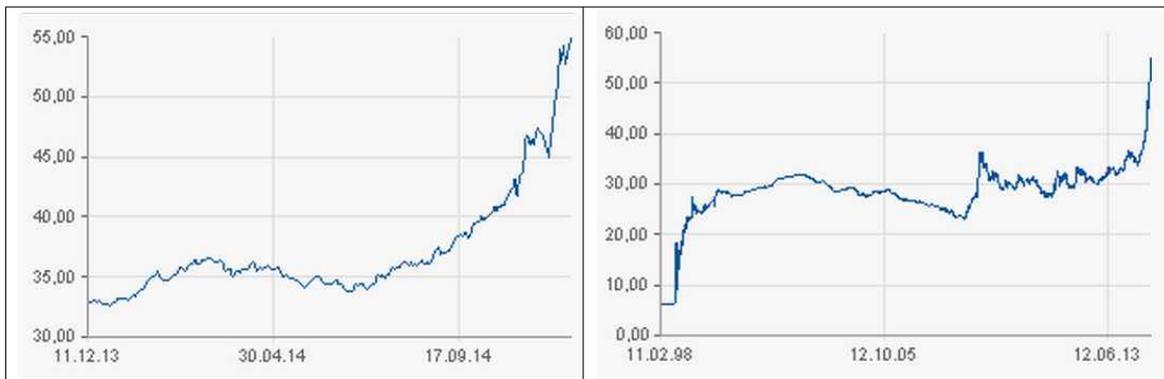
-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및 루블화 가치 절하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1% 인상 ('14년 중 총 5회 인상)
 - * '14년 기준금리 추이 : 5.5(2.17.) → 7.0(3.3.) → 7.5(4.28.) → 8.0(7.28.) → 9.5(10.31.)
- 중앙은행은 2014년 중 루블화 환율 방어를 위해 750억 달러 가량 투입(11.10일 변동환율제 도입 후에도 50억 달러 투입)하였으나, 루블화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달러화 대비 루블화 가치가 연초대비 40% 가량 하락하고, 1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이 9.1%에 달하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중앙은행은 향후 3년간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언급하며,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증가할 경우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밝힘
- Elvira Nabiullina 중앙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공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천명함
 - 2015년 자본 유출액 전망을 기존 99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상향하며,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에 700억 달러까지 투입할 수 있음을 언급
 - 경제성장률 둔화, 서방의 대러 제재, 국제유가 하락, 루블화 가치 절하 등의 요인으로 자본유출이 급증하여 2014년 자본유출액은 1,2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한편, Nabiullina 중앙은행 총재는 루블화 가치가 현 국제유가 수준을 고려해도 10%~20% 가량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

□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루블화 하락세 지속

- 12.11일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은 전일대비 2.8% 상승한 56.43 루블을 기록하여 최근 상승 추세 지속
-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최근 2주 동안 루블화 환율은 15% 이상 급락

< 최근 미달러화 대비 루블화 시장환율 동향 >

날 짜	종 가	시 가	장중 최고	장중 최저
14. 12. 11	56.4310	54.9045	57.0835	54.0995
14. 12. 10	54,9160	54,0640	54,9500	53,8895
14. 12. 09	54,1415	53,7280	54,6080	53,6110
14. 12. 08	53,7265	52,6845	53,9260	52,5760
14. 12. 05	52,6775	54,3080	54,4055	52,4995
14. 12. 04	54,3340	53,6100	54,6340	52,0720
14. 12. 03	52,9995	53,9500	54,8915	52,5620
14. 12. 02	53,9180	51,1225	54,3705	50,4445
14. 12. 01	51,0990	49,3470	53,9285	49,3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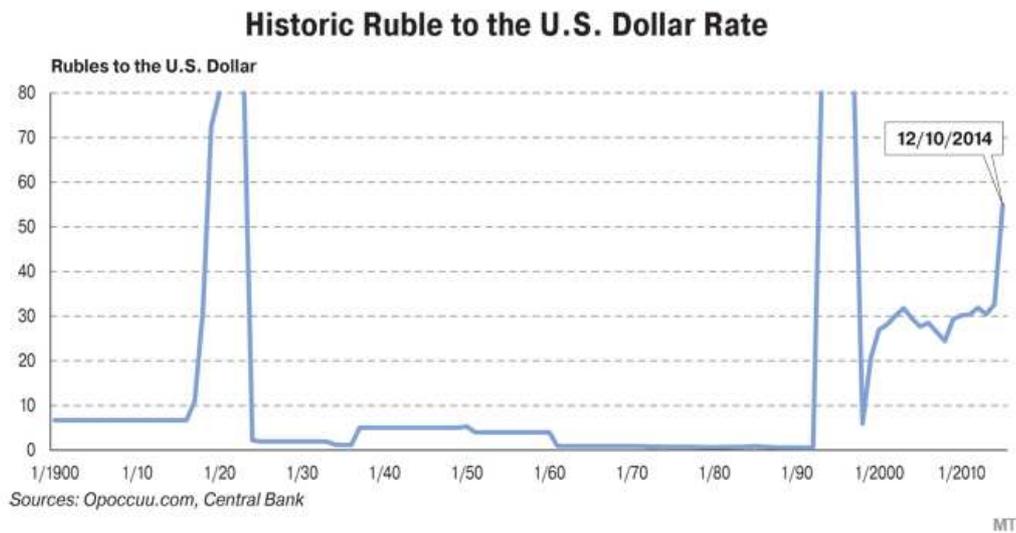


<최근 1년 루블화 동향 >

<최근 16년 루블화 동향 >

- (시장반응) 다수 전문가들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루블화 환율 안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모스크바 MDM Bank 환전문가인 Aram Kazayan은 “1%의 금리인상은 전체 자산의 환리스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
- 모스크바 Credit Suisse 이코노미스트인 Alexei Pogorelov는 “시장이 중앙은행과 러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해 회의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상황이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언급

- 현재 루블화가 처한 상황은 1991년 구소련 및 1913년 재정 러시아 상황과 유사한 역사적 위기라는 의견도 대두 (루블화 역사학자 Sorokoumov)
 - 루블화는 가장 오래된 유럽 화폐 중 하나로 13세기부터 800여 년간 사용되고 있으며, 러시아어와 함께 러시아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평가되어 왔음
 -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은 러시아가 혁명, 내전 등을 겪었던 1923년 역사상 최고치인 1달러 당 2,352,941루블을 기록하였고, 구소련 체제 붕괴 후 1992~1997년간 급격하게 상승하여 1997년 최고 5,562루블까지 기록한 바 있음
 - Sorokoumov는 역사적으로 시장의 신뢰가 사라질 경우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음을 경고



/끝/

자료원: 현지언론(Moscowtimes) 기사 및 러 중앙은행 자료 등